우리동네 '무서운 아저씨' 이렇게 많아?

■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보니

광주 118·전남 178명…북구·여수 市·道 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비율 전국 상위권

초등생을 이불에 감싸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한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종석(24)씨가 범행을 저질렀던 나주에는 모두 7명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공산면(2명)과 송월·대호·용산동에 각 한 명씩, 산포면에도 한 명이 산다.

최근 몇 년 동안 시민들을 불안케 만든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들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들이었다는 점에서 아이를 둔 부모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사는 동네'에 성범죄자는 몇 명이나 살까. 또 우리 동네에도 '무서운 아저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살고 있을까.

◇동네 밤길 무섭다=3일 성폭력 범죄자의 간단한 신상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광주 118명·전남 178명 등 296명에 이른다. 인구 비중으로만 따지면 광주·전남의 경우 서울(490명·10만명 당 4.8명)의 2배(광주 10만명당 8.02명, 전남 10만명당 9.3명)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북구(40명)가 가장 많고 광산구(29명), 남구(20명), 동구(15명), 서구(14명) 등의 순이다.

북구에서는 문흥·중흥동에 각각 5명, 두암·오치동에는 4명씩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에서는 신창(5명), 월곡·우산·송정(3명), 산정·수완(2명) 등의 순이었다. 남구에서는 월산동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근 백운·주월·방림동에도 2명씩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에서는 금호·농성동에 3명씩, 화정·풍암·양동엔 각각 2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여수(30명)가 가장 많고 순천(23명)·목포(22명)·광양(14명)·화순(10명)·영광(9명)·해남(8명) 등의 순이었다. 목포에서는 상동과 용당동에만 6명씩 12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서운 아저씨, 우리 동네 산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는 광주 88명, 전남 138명에 달한다. 광주에 거주지를 둔 성범죄자 118명 중 74.6%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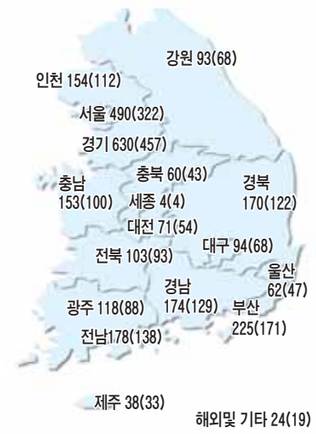
특히 북구에만 두암·문흥·중흥동(4명)을 비롯, 31명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산구(21명), 남구(15명), 서구(10명) 등의 순이었다. 동구는 15명의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 중 11명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178명의 성범죄자 중 77.5%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파악됐으며 여수(25명), 목포(17명), 순천(15명) 등의 순이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할 경우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인구를 감안하면 전국에서도 상위권 수준이다. 경찰의 치안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성 범죄자 거주지 현황 (단위:명)



■광주

동구	15(11)	북구	40(31)
서구	14(10)	광산구	29(21)
남구	20(15)		

■전남

영광	9(7)	목포	22(17)
장성	4(4)	영암	4(4)
담양	2(2)	강진	6(4)
구례	1(1)	보성	3(3)
곡성	3(3)	여수	30(25)
함평	2(0)	고흥	8(6)
무안	6(4)	장흥	7(5)
나주	7(7)	해남	8(6)
화순	10(7)	완도	5(5)
순천	23(15)	진도	3(2)
광양	14(10)	신안	1(1)

※( ) 안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거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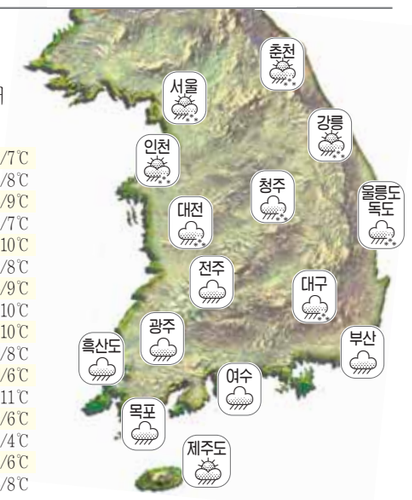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9분 / 해짐 18시 04분 | 달뜸 01시 22분 / 달짐 12시 00분

입춘, 날씨풀려요

오전까지 비온 뒤 낮부터 점차 개겠다.

광 주	흐리고 비	5/7℃
목 포	흐리고 비	6/8℃
여 수	흐리고 비	6/9℃
나 주	흐리고 비	5/7℃
완 도	흐리고 비	7/10℃
구 례	흐리고 비	5/8℃
강 진	흐리고 비	6/9℃
해 남	흐리고 비	8/10℃
장 흥	흐리고 비	7/10℃
순 천	흐리고 비	4/8℃
영 광	흐리고 비	4/6℃
진 도	흐리고 비	8/11℃
전 주	흐리고 비	3/6℃
군 산	흐리고 비	1/4℃
남 원	흐리고 비	3/6℃
흑산도	흐리고 비	6/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증지수
관심	낮음	높음

	밀물	썰물
목포	07:53 / 20:00	00:23 / 13:02
여수	02:33 / 14:44	08:44 / 21:03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날 씨						
최저/최고	0/3	1/4	-4/-1	-8/0	-6/1	-3/3

새봄 새희망 기원 '입춘방'

휴일인 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시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입춘방(立春榜) 써주기'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이 현관문에 붙여진 방(榜)을 바라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그 많던 군고구마 장수 어디로…

고구마 값 오르고 이윤 줄자 대학생 등 부업자 급감

겨울이면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군고구마 장수가 자취를 감췄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나 노인들의 부업으로 인기를 모았던 군고구마 장사가 고구마 값이 오른 데다 찾는 이가 드물어지면서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9일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따르면 고구마(1kg)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4435원. 평년(3790원) 보다 645원이나 비쌌다.

양동시장의 경우 그나마 1kg 상품 기준으로 4000원선에 거래되고 있지만 유통업체에서 거래되는 고구마는 4980원에 이른다. 고구마를 굽는 통 가격도 20만에서 25만원으로 올랐다.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군고구마 통을 판매하는 철물점 주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판 통이 10개 뿐"이라며 "20년 넘게 해왔지만 올해가 가장 적다"고 말했다.

광주 충장로에서 30년 넘게 고구마를 팔아온 박창재(73)씨는 "재료비가 꾸준히 오른 탓에 군고구마 값이 올라 그만큼 손님이 줄었다"고 말했다.

용돈 벌이를 위해 고구마 장수에 나섰던 대학생들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하루 6시간 넘게 추위와 싸우며 고구마를 팔아도 원가 등을 제외하면 고작 1~2만원 남는 수준이어서 나서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범죄예방 경찰 8700명 늘린다

새 정부 출범 후 5년간 지구대와 파출소 등 범죄 예방 분야에 8천700명이 넘는 경찰력이 신규 보강된다. 아동, 청소년 보호, 성폭력 대응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3700여명의 경찰이 추가로 투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향후 5년간 인력 증원 방안'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경찰 4000여명씩을 늘려 앞으로 5년간 2만명을 증원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실천하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인력 배분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우선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에 전체 인력 증원 규모인 2만명의 43%에 달하는 8700여명을 투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수사 역량 강화 부문에도 4900여명의 경찰력이 신규 투입돼 발생 사건에 대한 범인 검거 기능이 큰 폭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대응 분야에는 2300여명의 인력을 신규 충원하기로 배정했다. /연합뉴스

방향제·탈취제 81%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5개 가운데 4개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유해 화학물질이 다수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방향제와 탈취제 42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의 81%인 34개 제품에서 벤질알콜·d-리모넨·d-리날룰·시트로넬룰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개 제품은 세제 등에 적용하는 유럽연합(EU)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EU는 벤질알콜의 경우 완구류에 사용을 금지하고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세제나 화장품에 0.01% 이상 사용하면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벤질알콜에 대한 기준치는 없고 나머지 3종은 화장품에 0.01% 이상 들어있으면 표시를 권장하고 있지만 탈취제나 방향제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다. 벤질알콜은 방향제 6종에서, d-리모넨 등 3가지 물질은 34종에서 검출됐다. /연합뉴스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까지 가능
전 사업장으로 확대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도를 확대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최대 5일이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다. /연합뉴스